

금호타이어 제2 노조 설립 될 듯

오늘부터 복수노조 허용... 광주·전남 노동자들 문의 잇따라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기존엔 한 기업에 하나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 복수노조 허용으로 한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는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광주·전남 지역 노동현장에서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미 금호고속에 2개의 노조가 존재하고, 금호타이어도 복수노조 설립을 선언한 상태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로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민주)'는 대자보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새민주는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산별노조(급속노조)는 단위사업장의 분열과 혼란을 물고 왔다"며 산별노조 무용론을 제기했다. 새민주는 또 "금호타이어 5000여명의 사원 중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은 3370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새민주 외에 노노간 파벌다툼으로 '제3의 노조' 설립 가능성도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간 양금이 남아있고,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도 별도의 노조 설립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연관 대기업들의 노사(勞使)-노노(勞勞) 관계 변화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장이 준비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지만 움직임은 활발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와 사실상 휴

탈퇴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설립, 2개의 노조가 됐다.

새 노조는 '6년 무분규' 전통을 깨고 올해 초 과업을 벌였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새 노조의 강경행동에 대해 복수노조 시내를 대비한 조직 확대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계는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신내버스와 군내버스 등 운수업종의 사업장에서 두 노조 움직임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연관 대기업들의 노사(勞使)-노노(勞勞) 관계 변화도 관심이다.

기아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아노동자연대(기노련)의 노조 설립이 점쳐지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와 사실상 휴

면노조 상태인 포스코도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신규 노조 태동 움직임이 일면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삼성 전자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조 설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근로자들과 스キン십을 강화하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 초기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세 대결도 예상된다. 또 노조가 2개 이상이더라도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 교섭을 둘러싸고 노사노노 대결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복

수노조 설립과 관련,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장이 준비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지만 움직임은 활발하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과 삼성LED 조성현 부사장 등이 지난 30일 광기술원에서 LED조명 관련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광기술원 제공>

광기술원·삼성LED 손 잡고

LED 조명 기술개발 나선다

한국광기술원이 삼성LED와 손을 잡고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과 삼성LED 대표이사 김재권은 30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광기술원에서 LED조명 관련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LED조명, 조명 관련 핵심 요소기술, 차세대 LED까지 기술 및 층정 분석 등이다.

삼성LED는 다년간 축적된 LED사업 경험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기술원의 기술력과 우수 연구진, 장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광기술원에 '삼성LED-광기술원 LED조명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3년에 걸쳐 다양한 과제를 진행한다.

양측은 LED 관련 기술과 종장기 응용 제품의 선행 개발을 통해 글로벌 LED조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LED조명 표준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선호 광기술원 원장은 "삼성

LED의 기술력 및 사업 능력과 광기술원의 연구 및 기업지원 능력의 결합을 통해 LED조명 및 패키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과 삼성LED 조성현 부사장 등이 지난 30일 광기술원에서 LED조명 관련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광기술원 제공>

광주·대불산단 미니클러스터

협력사업 수십억 성과

호남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미니클러스터의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호남권본부에서 광주·대불·군·군·의존 등 4개 지역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주)DHMC는 현대삼호중공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풀스페드 라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업체는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로부터 85억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순성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기획총괄팀장은 "앞으로도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현진기업은 GMP 취득을 통해 LG생활화학·베피플러스 등 5개 업체에 납품, 3억원

의 매출을 올렸다.

대불단지는 기업지원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 현장과 연계한 맞춤식 방문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주)DHMC는 현대삼호중공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풀스페드 라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업체는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로부터 85억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순성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기획총괄팀장은 "앞으로도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현진기업은 GMP 취득을 통해 LG생활화학·베피플러스 등 5개 업체에 납품, 3억원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전자부품연구원 기술이전 설명회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세영)는 30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연구원에서 광주지역 종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부품연구원 기술이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광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센서 시스템 기술' 등 4개 유망기술을 소개됐다.

연구원은 설명회 이후 이전대상 기술의 시제품 시연으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1대 1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을 설명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한·EU FTA 잠정발효... 9195개 품목 관세 철폐

자동차 대당 400만원 가격인하

외인은 리터당 2554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잠정발효되면서 EU에서 생산된 총 9천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EU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딱은 FTA 관세체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한·EU FTA가 잠정발효되면 자동차부품, 직물제의류, 냉장고 등 EU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81.7%인 919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외인은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로부터 85억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호남석유화학은 기업은행에 예탁금을 맡기면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사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호남석유화학이 기업은행에 예탁금을 맡기면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사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펀드를 통해 호남석유화학의 협력업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효과는 21.9%에 달해 리터당 255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수입가격 대당 400만원 기준)는 현행 8%인 관세가 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총 세율은 9.9% 떨어져 대당 4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가죽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100.69 (+6.27)
코스닥지수
479.55 (+2.98)
금리 (국고채 3년)
3.76% (-0.01)
원·달러 환율
1067.70원 (-9.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호남석화, 동반성장펀드 500억 조성

호남석유화학은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이 기업은행에 예탁금을 맡기면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있으며, 작년부터는 협력업체에 100% 현금결제를 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펀드를 통해 호남석유화학의 협력업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업체는 시장보다 2~3% 낮은 금리를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생보증기금을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에 100% 현금결제를 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기업은행에 예탁금을 맡기면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사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펀드를 통해 호남석유화학의 협력업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당일 7월 1일 255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수입가격 대당 400만원 기준)는 현행 8%인 관세가 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총 세율은 9.9% 떨어져 대당 4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가죽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 유통화자신재판으로 유통화회사 유입부동산이나 경매재산으로 물권을 매수인에게